

# 2020 국별 진출전략

## 콜롬비아



|  |           |
|--|-----------|
| <b>I.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</b> .....            | <b>3</b>  |
| 1. 개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|
| 가. 시장 전망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|
| 나. 주요 경제지표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|
| 2.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.....                | 4         |
| 가. 새로운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부흥 .....             | 4         |
| 나. 지방선거 후 지자체별 프로젝트 활성화 .....            | 4         |
| 다.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과 선호무역국가 변화 .....          | 5         |
| 라. 평화협정 반대 세력의 전쟁 선포 및 무장 결정 선언 .....    | 5         |
| 마.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 증가 .....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|
| <b>II. 비즈니스 환경 분석</b> .....              | <b>7</b>  |
| 1. 정치·경제·산업·정책 환경 .....                  | 7         |
| 가. 정치 환경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         |
| 나. 경제 환경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         |
| 다. 산업 환경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         |
| 라. 정책·규제 환경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|
| 2. 시장 분석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        |
| 가. 시장 특성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        |
| 나. 교역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        |
| 다. 투자진출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        |
| 라. 콜롬비아 주요 프로젝트 .....                    | 16        |
| 3.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.....           | 17        |
| 가. 교역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7        |
| 나. 투자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        |
| 다. 주요 경제협력 의제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21        |
| <b>III. 진출전략</b> .....                   | <b>22</b> |
| 1.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.....                  | 22        |
| 2. 주요 이슈·산업별 진출전략 .....                  | 23        |
| 3. 한-콜롬비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.....            | 27        |
| 4. 진출 시 유의사항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31        |
| <b>첨 부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1. 수출유망품목(상품)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32        |
| 2. 수출유망품목(서비스) .....                     | 33        |
| 3.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(잡정) .....          | 34        |
| 4. 2020년도 주요 정치·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..... | 35        |
| <b>부 록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對콜롬비아 K패키지(양국 간 상생협력방안) .....            | 36        |



# I.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

## 1 개요

### 가. 시장 전망

#### 2020년 콜롬비아 시장 전망 완만한 성장 기대

- 세금 정책 개혁으로 긍정적 결과 기대
  - 2019년 콜롬비아 경제성장률은 3.1% 예상
  -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3%의 경제성장률 기대
  -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기업의 사업 환경이 개선되면서 고용이 증가하고, 개인 소득세 납세 기준 확대로 세수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재정 적자 완화 예상

#### 연도별 경제성장률 현황

(단위 : %)

| 연도    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경제 성장률 | 2     | 1.7   | 2.5   | 3.1   | 2.9   | 3     |

주: 2019~2021년 전망치

자료: Economist Intelligence Unit

### 나. 주요 경제지표

| 주요 지표       | 단위       | 2013년   | 2014년   | 2015년   | 2016년   | 2017년   | 2018년   | 2019년   | 2020년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인구          | 백만 명     | 47.12   | 47.66   | 48.23   | 48.65   | 49.07   | 49.46   | 49.85   | 50.22   |
| 명목 GDP      | 십억 달러    | 380.2   | 381.2   | 293.5   | 282.7   | 311.8   | 331.0   | 323.4   | 348.1   |
| 1인당 명목GDP   | 달러       | 8,030   | 8,002   | 6,035   | 5,806   | 6,407   | 7,006   | 6,606   | 7,051   |
| 실질성장률       | %        | 4.9     | 4.7     | 3.0     | 2.1     | 1.4     | 2.6     | 3.1     | 2.9     |
| 실업률         | %        | 9.7     | 9.1     | 8.9     | 9.2     | 9.4     | 9.7     | 10.7    | 10.3    |
| 소비자물가상승률    | %        | 1.9     | 3.7     | 6.8     | 5.7     | 4.1     | 3.2     | 3.4     | 2.9     |
| 재정수지(GDP대비) | %        | 0.1     | -1.8    | -3.4    | -2.3    | -2.7    | -2.9    | -2.5    | -2.4    |
| 총수출         | 백만 달러    | 58,821  | 56,899  | 38,752  | 34,091  | 39,676  | 44,373  | 45,577  | 47,323  |
| (對韓 수출)     | "        | 229.9   | 519.6   | 229.3   | 402.0   | 457.0   | 627.4   | 728.4   | -       |
| 총수입         | "        | 59,937  | 61,539  | 52,051  | 43,239  | 44,247  | 49,583  | 53,482  | 56,191  |
| (對韓 수입)     | "        | 1,296   | 1,500.4 | 1,155.3 | 888.9   | 791.5   | 819.2   | 827.1   | -       |
| 무역수지        | 백만 달러    | -1,116  | -4,641  | -13,479 | -9,148  | -4,571  | -5,502  | -7,905  | -8,868  |
| 경상수지        | "        | -12,503 | -19,762 | -18,563 | -12,008 | -10,341 | -12,909 | -13,562 | -14,700 |
| 환율(연평균)     | 현지국/US\$ | 1,927   | 2,392   | 3,149   | 3,001   | 2,984   | 3,250   | 3,148   | 3,095   |
| 해외직접투자      | 억 달러     | 7,652   | 3,899   | 4,218   | 4,517   | 3,690   | 5,122   | -       | -       |
| 외국인직접투자     | 억 달러     | 16,209  | 16,167  | 11,723  | 13,850  | 13,836  | 11,352  | -       | -       |

주: 2019년은 추정치, 2020년은 전망치

자료: IMF(2019.8), ECONOMIST(2019.8), DANE(2019.7), BANREP(2019년 7월)

##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

2020년 콜롬비아는 지방선거와 세금 개혁 등 내부적 변화와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 증가, 전 반군세력 테러 위협, 고환율 유지 등 외부적 위협으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됨

### 가. 새로운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부흥

#### 정부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세금 개혁

- 새로운 금융법 도입을 통한 재정 적자 해결 시도
  - 2018년 12월 새로운 세금 개혁이 일부 가결되면서 2019년부터 새로운 금융법 적용
  - 법인세 인하, 개인 소득세 기준 확대, 오렌지 경제 관련 산업\*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 시행
    - \* 오렌지 경제 : 문화 콘텐츠와 관계있는 건축, 공연, 예술, 디자인 등과 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모바일 인터넷, 에너지 저장장치, 3D 프린팅 등이 포함된 문화 디지털 창조 경제 육성 정책
  - 공공수입을 늘리고 재정적자를 관리해 아르헨티나 경우와 유사한 경제위기를 피하기 위함
- 법인세 인하 정책 실시
  - 콜롬비아 정부는 올해 33%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법인세를 30%로 낮추는 세금 개혁 실시
  -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확대를 기대

#### 콜롬비아 법인세 인하 계획

(단위 : %)

| 연도    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적용 법인세 | 33    | 32    | 31    | 30    |

자료 : DIAN(2018년 12월)

### 나. 지방선거 후 지자체별 신규 프로젝트 활성화

#### 2019년 10월 콜롬비아 지방선거 실시

- 콜롬비아 전역의 시장, 주지사, 지방의회의원 선거 실시
  -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장, 주지사, 국회의원들은 2020년부터 임무 수행
  - 지역별 지도자 및 공무원 등 교체로 인해 신규 프로젝트(오렌지 경제, 농업 등) 계획 수립 및 실행 예정

- 보고타 시장 클라우드 로페스 당선
  - 주요 공약은 부패척결, 공공치안, 불평등 격차해소, 성평등, 보고타 시 생태 보호 등
  - 이에 따라 도시 안전관리, 교육센터 설립, 도시개발 계획 및 수자원관리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활동 예정

## 다.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과 선호무역국가 변화

### 콜롬비아 통화 가치 하락

- 페소 가치 하락, 재정 적자 등 인플레이션 위험성 존재
  - 콜롬비아 페소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통화 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14.8% 하락
  - 통화가치 하락으로 해외 송금이 증가하고 수출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위험을 증가
- 비용절감을 위한 중국, 인도 수입 상승
  - 달러 가치 상승으로 미국, 한국 등에서 수입을 진행하던 콜롬비아 수입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중국, 인도 제품 선호

## 라. 평화협정 반대세력의 전쟁 선포 및 무장 결정 선언

### 평화협정 위기론

|   |  |   |
|---|--|---|
| ①<br>2016년 11월<br>산토스 정부 FARC와 평화협정 체결                  | ②<br>2018년 8월<br>이반 두케 대통령 당선                | ③<br>두케 정부,<br>평화협정 조약 이의제기 및 수정 시도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<br>전 FARC 주요 지도자 3인<br>(마르케스, 엘 피아사, 산트리치)<br>평화협정 이탈 | ⑤<br>2019년 8월<br>탈출한 3인,<br>대(對)정부 제2차 내전 선포 | ⑥<br>이반 두케, 3인에 대한 특별 사법적용을<br>철회하고,<br>테러와 마약 범죄 조직으로 공개수배 |

- 이반 두케 대통령의 평화협정을 위한 특별 사법 시스템 반대
  - 지난 2016년 콜롬비아는 내전을 종결하기 위해 前 산토스 정부와 반군세력인 FARC가 평화협정을 체결
  - 협정 내용에는 반군 세력을 위한 특별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며, 그 내용 중 관련 인물들에게 법적 처벌을 하지 않는 조항이 존재
  - 2018년 취임한 이반 두케는 대통령 당선 후 해당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발표
  - 이에 반발한 前 FARC 지도자 3인은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며, 이반 두케 대통령은 이 3인을 테러 및 마약 범죄 조직으로 공개수배 발표

- 정부는 마약 범죄 소탕 정책을 유지하고 보안을 위해 국방 예산을 증액 할 예정

## 마.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 증가

###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으로 인한 사회 문제 증가

- o 사회 불안, 실업률 증가 등 문제 발생
  - 콜롬비아로 입국한 베네수엘라 난민 수는 약 150만 명으로, 콜롬비아 전역의 범죄율과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증가
  - 조사 결과, 이 중 약 74만 명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
  - 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엄격히 하고, 고용 시장 개선 방법 모색 중

### 콜롬비아로 입국한 베네수엘라인 집계 및 정착 지역 조사 현황 (2019년 7월 기준)

| 도시명          | 거주인구수 (명) | %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보고타          | 313,528   | 22.27 |
| 노르테 데 산탄데르 주 | 185,433   | 13.17 |
| 라 과히라 주      | 163,966   | 11.64 |
| 아틀란티코 주      | 125,075   | 8.88  |
| 안티오키아 주      | 112,745   | 8.01  |
| 기타           | 507,308   | 36.03 |
| 총합           | 1,408,055 | 100   |

자료 : 콜롬비아 이민국(Migracion)



## II. 비즈니스 환경 분석

### 1 정치·경제·산업·정책 환경

- 이반 두케 대통령은 오렌지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투자 유치 방안을 검토 중
- 불안정한 내부 정치상황과 국가 부채 증가라는 위험요소가 있으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경제 활성화에 주력

## II

비즈니스  
환경 분석

### 가. 정치 환경

#### 콜롬비아 정치 환경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부형태  | 대통령제(4년 단임제)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가원수  | 이반 두케 마르케스(Ivan Duque Marquez)     |
| 입 법 부 | 양원제(상원108석, 하원166석)                |
| 주요 정당 | U(우)당, 보수당, 자유당, 민주당, 급진변화당, 녹색당 등 |
| 정부성향  | 자유민주주의, 친미우익 성향                    |

- 콜롬비아 정치 성향
  - 콜롬비아는 좌파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기타 남미국가(베네수엘라, 볼리비아 등)와 다르게 우파의 성향이 강함
  - \* 제58대 우리베(Uribe) 대통령, 제59대 산토스(Santos) 대통령, 현 두케(Duque) 대통령까지 우파출신
- 이반 두케 대통령의 주요 정책
  - 두케 정부의 대표 추진 정책으로는 법인세 30%까지 인하, 오렌지 경제

### 나. 경제 환경

#### 국가 신용도

- 비즈니스 환경
  - 2019 World Bank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비즈니스 환경 60위(세계 190개국)이고, 특히, 비즈니스를 위한 신용 확보 부분에서 전체 3위를 차지했으며, 사업자의 법적 권리를 잘 보호한다고 평가 받음

○ 국가 신용평가 등급

- 2019년 5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Fitch Rating사는 정부의 세제 개혁 등 콜롬비아 정부의 국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 평가를 보류한다고 발표했고, 기존 콜롬비아 신용 등급은 BBB(긍정적)
- 신용평가회사인 Moody's는 콜롬비아를 투자적격등급 중 신용상태적절등급인 Baa2로 평가

신용 평가기관 별 콜롬비아 국가 신용도 등급

| Moody's |      | S&P  |      | Fitch |    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|
| 등급      | 전망   | 등급   | 전망   | 등급    | 전망  |
| Baa2    | 투자적절 | BBB- | 투자적절 | BBB   | 긍정적 |

자료 : Moody's(2019.5), S&P(2017년 12월), Fitch(2019년 5월)

 **경제 동향**

○ 정부 지출

- 2019년과 2020년 정부지출은 평균 3.35% 증가 할 것으로 예상
- 공공사업으로 인한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조세 개혁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정부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 있음

○ 환율

- 2019년 1분기 평균 환율은 3,148 페소로 작년 12월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부터 지속 상승
- 2019년 연평균 환율은 1USD= 3,459.47COP(2019년 8월 28일 기준)

연평균 달러 대비 콜롬비아 페소화 환율 변화 추이

(단위: COP)

| 2017년 | 2018년 | 2019년* | 2020년* |
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2,984 | 3,249 | 3,148  | 3,095  |

주 : 2019, 2020 전망치

자료 : 콜롬비아 중앙은행(Banrep)(2019년 7월), EIU(2019년 8월)

○ 실업률

-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5.5%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콜롬비아 실업률은 높아지는 추세이고, 2018년 평균 실업률은 9.7% 기록
- 주된 원인으로 높은 비정규직 의존도 및 서비스 산업과 일부 제조업에 편중된 고용시장 구조,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 증가 때문

### 콜롬비아 연도별 실업률 동향

| 지표    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실업률(%) | 9.4   | 9.7   | 10.7  | 10.3  |

주 : 2019년, 2020년 전망치  
 자료 : Economist(2019년 8월)

#### ○ 물가 상승률

- 2019년 물가상승률 3.4% 전망
- 2019년 상반기 기준, 식품 및 비주류 분야의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음

### 연도별 물가상승률

(단위: %)

| 연도   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물가상승률 | 4.09  | 3.18  | 3.4   | 3.2   |

주 : 2019, 2020년 전망치  
 자료 : Banrep(2019년 7월)

### 주요 품목별 물가상승률 현황

(단위: %)

| 분야                    | 2019년 1~6월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식품 및 비주류              | 5.25       |
| 주류 및 담배               | 4.41       |
| 의류                    | 0.35       |
| 주거, 수도, 전기, 가스 등      | 2.19       |
| 가구 가정용품 및 일반 가정용 소비제품 | 2.22       |
| 건강                    | 1.35       |
| 교통                    | 2.23       |
| 정보/통신                 | 1.73       |
| 유희/여가                 | 1.56       |
| 교육                    | 4.66       |
| 식당/숙박                 | 2.64       |
| 기타 상품/서비스             | 2.19       |

자료 : 콜롬비아통계청(DANE)(2019년 6월)

## 다. 산업 환경

### 1차 산업 의존적인 콜롬비아 산업 환경

- 2018년 주요 산업별 GDP 대비 비중 광업이 16.6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2019년 1분기 기준, 5.3% 기록

### 콜롬비아 주요 산업별 GDP 대비 비중

(단위: %)

| 산업           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1Q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농축수산업         | 3.0   | 4.2   | 1.4      |
| 광업            | 15.7  | 16.6  | 5.3      |
| 제조업           | -1.1  | 5.1   | 2.9      |
| 전기/가스/수도      | 7.8   | 2.3   | 3.1      |
| 건설            | 0.2   | -2.0  | -5.6     |
| 도소매업          | 6.7   | 6.2   | 4.0      |
| 정보통신          | 6.8   | 3.6   | 3.9      |
| 금융            | 13.8  | 8.3   | 5.5      |
| 부동산           | 7.0   | 4.6   | 3.0      |
| 전문업(의료, 법률 등) | 5.4   | 8.0   | 3.0      |
| 공공서비스         | 9.5   | 7.5   | 3.3      |
| 문화/오락         | 8.2   | 3.8   | 2.1      |

자료: 콜롬비아 중앙은행(Banrep)(2019년 3월)

## 라. 정책·규제 환경

### 콜롬비아 주요 경제 정책

- 콜롬비아 GDP 성장에 기여하는 오렌지 경제
  - 2019년 오렌지 경제의 콜롬비아 GDP 기여도는 1.9%로 전망
  - 콜롬비아 통계청은 오렌지 경제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 시스템(SIENA)을 개발하였으며, 오렌지 경제 소비를 측정 중
  - 정부가 발표한 1차 오렌지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, 2018년 오렌지 경제 프로그램을 통해 총 282,566개의 일자리 창출(전체 고용 시장의 약 2.6%에 해당)
  - 이반 두케 정부는 오렌지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여 향후 10년 내 콜롬비아 GDP의 7%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

### 오렌지 경제 예상 성장률

(단위: %)

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2.2   | 3.01  | 3.4   | 3.4   |

자료 : DANE, Portafolio(2019년 6월)

### 콜롬비아 주요 수입규제 정책

- 수입규제 품목
  - 황인 및 질산암모늄 등 위험 품목은 자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영구 수입 규제 제품으로 지정
  - \* 수입금지 품목 : 무기류, 폭발성 물질, 환경 유해 물질, 마약 제조 원료

### 영구 수입규제 품목(HS Code)

| HS Code      | 품명         | HS Code      | 품명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0207.13.0000 | 냉동육류       | 2904.90.2000 | 팬스리이트          |
| 0207.54.0000 |            | 2904.90.0000 | 니트로크로트 톨루엔     |
| 0207.14.0000 |            | 3102.30.0000 | 질산암모늄          |
| 1602.31.1100 | 칠면조 반조리 식품 | 3102.50.0000 | 질산나트륨          |
| 2602.00.0000 | 마그네슘 광물    | 3102.60.0000 | 질산칼륨           |
| 2707.20.0000 | 톨루엔        | 3912.20.0000 | 질산섬유소          |
| 2804.70.0020 | 황인         | 3601 류 전체    | 화약             |
| 2834.29.0010 | 질산 암모늄     | 3602 류 전체    | 폭약             |
| 2834.21.0000 | 질산 칼륨      | 3603 류 전체    | 도화선, 도폭선, 뇌관 등 |
| 2834.29.0090 | 질산 모노메틸리아  | 84 류 일부      | 중고 중장비, 기계류    |
| 2929.19.1000 | 염소산 칼륨     | 87 류 일부      | 중고 자동차         |
| 2904.20.1000 | 니트로 톨루엔    | 8905100000   | 마약             |
| 2904.20.9000 | 니트로 셀룰로스   | 93 류 전체      | 무기, 총포탄 및 부분품  |
| 2904.90.0000 | 니트로크로트 톨루엔 | 95 류 일부      | 무기성 장난감        |
| 2904.90.1000 | 니트로크로트 벤젠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

자료 : 콜롬비아 관세청(DIAN)(2018년 11월)

## 2 시장 분석

인구 5천만의 내수시장 보유, 부족한 제조 산업기반으로 인한 높은 수입 의존도, 현 정부의 친(親) 기업 중심 정책 발표 등 외국인 투자 및 진출이 용이하나, 타 국가에 비해 미국, 중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높고 고환율로 인한 국내제품 가격경쟁력 악화로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 필요

### 가.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

#### 콜롬비아 시장 특성

- 중남미 제3위 내수시장
  - 2018년 기준 GDP는 3,318억 달러, 인구 약 4.8천만 명의 내수시장 (중남미 3위)
  - 안데스 공동체, 태평양 동맹 등 역내 경제 블록 회원국으로 인구 2억의 거대시장
  - 2019년 상반기 수출(221억 달러), 수입(251억 달러) 총 427억 달러로 연간 무역수지(약 30억 달러 적자)의 무역규모
- 완제품 중심의 수입시장
  - 제조업 기반이 중간재 위주로 형성되어 소비재 생산 기반이 취약함
  - 전자제품, 의료기기, IT제품 등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 및 일반 생활소비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음
- 빈부격차로 소비시장 양극화
  - 지역 및 계층별 소득격차에 따른 상류, 중상, 및 저소득층의 시장 양분화
  - 소득 계층별로 생활 및 소비 패턴에 뚜렷한 차이를 보임
- 대규모 밀수시장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악화
  - 주요 밀수 품목은 의류, 주류, 담배, 전자제품, 자동차 부품 등임
  - 주요 도시마다 대규모 밀수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의류, 담배, 자동차 부품사업이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끼침

### 나. 교역

####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

- 미국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
  - 대(對)미국 수출 29.31%, 수입 25.48%로 미국 경기 변화에 민감

### 콜롬비아 10대 교역 대상국(2019년 상반기 기준)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| 수출 (FOB) |      |          |       | 수입 (CIF) |     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|
| 순위       | 국명   | 금액       | 점유율   | 순위       | 국명  | 금액       | 점유율   |
| 1        | 미국   | 6,486.3  | 29.31 | 1        | 미국  | 6,403.7  | 25.48 |
| 2        | 중국   | 1,848.6  | 8.35  | 2        | 중국  | 4,954.9  | 19.72 |
| 3        | 파나마  | 1,671.7  | 7.56  | 3        | 멕시코 | 1,812.4  | 7.21  |
| 4        | 멕시코  | 985.8    | 4.46  | 4        | 브라질 | 1,434.6  | 5.71  |
| 5        | 에콰도르 | 963.8    | 4.36  | 5        | 프랑스 | 1,106.8  | 4.40  |
| 6        | 네덜란드 | 877.9    | 3.97  | 6        | 독일  | 1,054.3  | 4.20  |
| 7        | 페루   | 876.8    | 3.96  | 7        | 일본  | 615.5    | 2.45  |
| 8        | 브라질  | 765.5    | 3.46  | 8        | 인도  | 573.6    | 2.28  |
| 9        | 터키   | 700.7    | 3.17  | 9        | 스페인 | 545.1    | 2.17  |
| 10       | 칠레   | 532.6    | 2.41  | 10       | 캐나다 | 475.8    | 1.89  |
| 16       | 한국   | 306.2    | 1.38  | 14       | 한국  | 346.0    | 1.38  |
| 총 수출액    |      | 22,127.7 | 100   | 총 수입액    |     | 25,128.2 | 100   |

자료 : SICEX(2019년 6월)

####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

- (수출) 2019년 상반기 기준 221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.2% 감소
  - 주요 품목으로 원유(30.64%), 석탄(12.02%), 커피 원두 등
- (수입) 2019년 상반기 기준 251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.1% 증가
  - 주요 품목으로 통신 기기(3.46%), 항공기 (2.76%) 등

### 콜롬비아 10대 수출입 품목(2019년 상반기 기준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| 수출(FOB)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수입(CIF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순위      | 품목            | 금액      | 비중    | 순위      | 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액    | 비중   |
| 1       | 원유            | 6,778.9 | 30.64 | 1       | 통신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69.2 | 3.46 |
| 2       | 석탄            | 2,659.6 | 12.02 | 2       | 항공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93.3 | 2.76 |
| 3       | 커피원두          | 1,081.4 | 4.89  | 3       | 등유와 그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| 635.1 | 2.53 |
| 4       | 항공기           | 741.7   | 3.35  | 4       | 자동차 휘발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22.8 | 2.08 |
| 5       | 금             | 654.7   | 2.96  | 5       | 기타 경질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19.1 | 2.07 |
| 6       | 그 밖의 휘발유      | 625.9   | 2.83  | 6       | 사료용 옥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6.0 | 2.01 |
| 7       | 바나나           | 472.4   | 2.13  | 7       | 의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34.9 | 1.73 |
| 8       | 코카스           | 435.3   | 1.97  | 8       | 승용자동차<br>(실린더용량 1,500Cc~ 3,000Cc) | 432.2 | 1.72 |
| 9       |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| 356.1   | 1.61  | 9       | 승용자동차<br>(실린더용량 1,000Cc~ 1,500Cc) | 280.9 | 1.12 |
| 10      | 등유와 그 조제품     | 354.6   | 1.60  | 10      | 자동차료처리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3.8 | 1.05 |

자료 : SICEX(2019년 6월)

### 비관세장벽

- 다양한 제품 인증 등록제도
  - 국제표준에 의거한 기술규제(TBT), 위생검역(SPS) 및 환경규제 관련 수입품에 대해 인비마(INVIMA), 레티에(RETIE), 이카(ICA) 등 인증서 취득을 요구

콜롬비아 비관세장벽 유형

| 종류  | SPS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TBT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| 기관명                | ICA              | RETIE   | RETIQ                        | RETIRAP   |
| 주관처 | 식약청                | 농업협회<br>(농림부 소속) | 에너지부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품목  | 의료기기, 식품, 화장품, 의약품 | 살아 있는 가축         | 전기/전자제품 | 냉각, 냉방 시스템이 장착된 가전제품/전기·전자제품 | 조명 및 조명시설 |

자료 : 콜롬비아 식약청, 에너지부, 농림부

### 우리기업 진출 성공사례

- 화장품 제조 판매 기업 T사
  - T사는 2015년 콜롬비아에 진출한 화장품 판매 기업으로 기초 스킨케어 제품부터 색조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
  - 콜롬비아 지사는 본사와 적극적인 소통과 신속한 서류준비로 원활하게 다양한 제품을 식약청에 등록해 현지 진출에 성공
  - 보고타와 메데진의 주요 백화점에 입점해 있으며, SNS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 운영 중
  - 현지 모델 채용으로 상품의 친화력을 높여 판매량 증가와 브랜드 인지도 상승

## 다. 투자진출

### 콜롬비아 투자 동향

- 다국적 기업의 콜롬비아 석유 산업 투자 증가
  - 2019년 1분기 기준, 주요 외국인 직접 투자 분야는 석유, 광업 등 자원분야  
\* 석유산업과 광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액의 44%를 차지
  - 전년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 분야는 석유, 광업, 전력/가스/수도 등
-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
  - 2019년 1분기 기준, 투자액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는 석유산업과 광업 등 1차 산업으로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약 44%를 차지

## 주요 산업별 콜롬비아 외국인 직접 투자(FDI)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)

| 산업별      | 2017년  | 2018년  | 2019년 1분기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석유산업     | 3,106  | 2,537  | 845       |
| 농림수산업    | 239    | 214    | 74        |
| 광업       | 956    | 1,690  | 618       |
| 제조업      | 2,495  | 1,119  | 515       |
| 전력/가스/수도 | 489    | 64     | 233       |
| 건설       | 336    | 669    | 167       |
| 유통/요식/호텔 | 890    | 1,264  | 236       |
| 물류/교통/통신 | 3,425  | 1,482  | 168       |
| 금융/부동산   | 1,629  | 1,947  | 337       |
| 공공서비스    | 392    | 366    | 142       |
| 총 투자액    | 13,956 | 11,352 | 3,335     |

자료 : 콜롬비아 중앙은행(Banrep)(2019년 3월)

###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

- 대(對)콜롬비아 최대 투자 국가는 미국
  - 2019년 1분기 기준, 주요 투자국은 미국(5억 9,600만 달러)이며, 스페인(4억 5,800만 달러), 스위스(4억 3,900만 달러)는 각각 2위와 3위 기록

## 대(對)콜롬비아 국별 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)

| 순위 | 국가    | 2019년 1분기 |
|----|-------|-----------|
| 1  | 미국    | 596.2     |
| 2  | 스페인   | 458.5     |
| 3  | 스위스   | 439.0     |
| 4  | 카이만제도 | 274.2     |
| 5  | 파나마   | 242.0     |
| 6  | 영국    | 217.0     |
| 7  | 앵귤라   | 187.8     |
| 8  | 캐나다   | 132.2     |
| 9  | 바베이도스 | 107.7     |
| 10 | 멕시코   | 94.2      |
| 76 | 대한민국  | -0.6      |
|    | 합계    | 3,335.0   |

자료 : 콜롬비아 중앙은행(Banrep)(2019년 3월)

### 투자 진입 장벽

- 투자 제한 및 불가 분야
  - 방송통신업은 외국인 지분율을 40%로 제한하며, 보험, 금융업, 광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사전허가 필요
  - 군사 및 민간/도시 보안에 대한 투자 불가

## 라. 콜롬비아 주요 프로젝트

### 인프라 건설

- 보고타-파카타티바 경전철 건설
  - (프로젝트 내용) 보고타시와 쿤디나마르카 주(州)에 속한 파카타티바 시(市)를 연결하는 40.5km의 경전철 건설
  - (예상 비용) 약 15억 달러
  - (주요 연결 도시) 보고타, 폰사, 모스케라, 마드리드, 파카타티바
  - 총 19개 역사로 연간 이용객 71.5백만 명 예상
  - 현재 보고타 시와 쿤디나마르카 주 간 요금 및 기술적 시안 협의로 사업 진행 지연 중

### 하수처리장 건설

- 소아차시에 하수처리장 건설 예정
  - (프로젝트 내용) 중남미 최대 규모 하수처리장 건설
  - (예상 비용) 약 15억 달러 예상
  - (주요 내용) 소아차시 및 인근 14개 소도시에 하수처리가능
  - 2019년 사전 입찰 자격 심사 후 2020년 입찰 예정

###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

#### 가. 교역

##### 대(對)콜롬비아 수출입 현황

- 2019년 상반기 대(對)콜롬비아 무역 수지 흑자 기록
  - 대(對)콜롬비아 수출 4억 9,500만 달러, 수입 3억 4,000만 달러, 총 1억 5,400만 달러의 무역 흑자
  - 수출은 전년 상반기 대비 13.1% 증가, 수입은 13.3% 감소

한국 대(對)콜롬비아 연도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| 년도       | 수출    |        | 수입  |        | 무역수지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|
|          | 금액    | 증감률    | 금액  | 증감률    | 금액   |
| 2014     | 1,509 | 12.45  | 607 | 194.12 | 901  |
| 2015     | 1,128 | -25.21 | 323 | -46.76 | 805  |
| 2016     | 853   | -24.43 | 432 | 33.8   | 420  |
| 2017     | 813   | -4.6   | 651 | 50.5   | 162  |
| 2018     | 1,012 | 24.4   | 834 | 28.1   | 177  |
| 2019 상반기 | 495   | 13.1   | 340 | -13.3  | 154  |

자료 : 한국무역협회(2019년 6월)

한국의 대(對)콜롬비아 10대 수출 품목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| 순위 | 품목             | 2018년 |         | 2019년 상반기 |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  | 금액    | 증감률     | 금액        | 증감률      |
| 1  | 무선통신기기         | 191.8 | 2,827.7 | 138.5     | 41,030.5 |
| 2  | 자동차부품          | 134.0 | -2.5    | 55.9      | -21.7    |
| 3  | 기타석유화학제품       | 62.6  | 17.9    | 28.2      | -12.0    |
| 4  | 자동차 1,500Cc 이하 | 60.5  | -0.3    | 27.5      | 1.0      |
| 5  | 자동차 1,500Cc 이상 | 38.4  | -50.0   | 12.7      | -42.9    |
| 6  | 기타승용차          | 12.2  | 0.0     | 10.8      | 164.3    |
| 7  | 폴리메탄아크릴산메틸     | 23.2  | -4.2    | 10.1      | 1.6      |
| 8  | 의약품            | 15.0  | 4.7     | 9.4       | 1.1      |
| 9  | 알루미늄판          | 10.7  | 913.5   | 8.5       | 258.0    |
| 10 | 기타플라스틱제품       | 17.6  | -4.0    | 8.5       | 8.0      |

자료 : 한국무역협회(2019년 6월)

- 2019년 상반기 주요 수출품은 무선통신기기로 집계
  - 2019년 상반기 기준, 주요 수출품은 무선통신기기\*, 자동차부품, 기타석유화학제품으로 상위 3위 제품이 전체 수출 점유율의 약 45% 차지
    - \* 무선통신기기가 증가한 이유는 S사의 중국 공장 폐쇄로 한국에서의 수출량이 증가했기 때문
  - 콜롬비아의 제조업 기반 취약 및 기술 부족으로 기술집약적인 완성품 및 자본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

### 한국의 콜롬비아 10대 수입품목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| 순위 | 품목       | 2018년 |       | 2019년 상반기 |       |
|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   |          | 금액    | 증감률   | 금액        | 증감률   |
| 1  | 유연탄      | 531.8 | 42.1  | 239.0     | -9.3  |
| 2  | 커피       | 89.7  | -12.8 | 43.5      | -11.3 |
| 3  | 동스크랩     | 44.5  | -41.3 | 28.0      | 7.4   |
| 4  | 커피제조품    | 7.0   | -7.3  | 4.6       | 22.8  |
| 5  | 농약원제     | 11.9  | 16.3  | 4.3       | -21.4 |
| 6  | 알루미늄스크랩  | 9.5   | -4.3  | 3.1       | -35.7 |
| 7  | 기타동물성한약재 | 5.0   | 22.6  | 2.9       | 20.0  |
| 8  | 카네이션     | 3.1   | 66.3  | 2.4       | 57.9  |
| 9  | 기타화초     | 4.8   | -7.4  | 2.3       | -6.8  |
| 10 | 고철       | 6.3   | 26.0  | 1.6       | -64.4 |

자료 : 한국무역협회(2019년 6월)

- 2019년 상반기 주요 수입품은 1차 상품
  - 한국의 콜롬비아 10대 수입 품목은 1차 상품(유연탄, 커피)의 비중이 높으나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
  - 2019년 상반기 기준, 유연탄 수입액(2억 3천 900만 달러)은 전년 대비 9.3% 감소했고, 커피 수입액은 4천 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.3% 감소

### 한-콜 FTA 활용률

- 2018년 기준, 한-콜 FTA 활용률이 수출 시 53%, 수입 시 90.3%로 활용률 기록

### 한-콜 FTA 연도별 활용률 변화

(단위 : %)

|      | 수출   | 수입   |
|------|------|------|
| 2016 | 17.4 | 66.4 |
| 2017 | 49.8 | 87.2 |
| 2018 | 53.0 | 90.3 |

자료 : 관세청(2018년)

○ 한-콜 FTA 산업별 활용률 현황

- 2018년 산업별 기준, 수출 시 한-콜 FTA 활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(74.9%)이며, 기계류, 전자전기제품이 각각 67.2%, 54.4%로 집계
- 수입 시 광산물은 FTA 활용률 100%로 집계되었으며, 철강금속제품이 99.6%, 농림수산물이 91.6%

한-콜 FTA 산업별 활용률(2018년 기준)

(단위: %)

| 산업별(MTI1기준)   | 수출   | 수입   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
| 농림수산물         | 5.5  | 91.6  |
| 광산물           | 4.6  | 100.0 |
| 화학공업제품        | 14.0 | 1.0   |
|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| 74.9 | 96.0  |
| 섬유류           | 41.5 | 8.0   |
| 생활용품          | 6.1  | 88.4  |
| 철강금속제품        | 1.9  | 99.6  |
| 기계류           | 67.2 | 0     |
| 전자전기제품        | 54.4 | 72.1  |
| 잡제품           | 0    | 0     |
| 합계            | 53.0 | 90.3  |

자료 : 관세청(2018년)

나. 투자

 한-콜 투자 현황

○ 우리기업 투자진출 동향

- 2019년 8월 기준, 우리기업 20개사가 진출해 있으며, 대부분이 현지법인 형태로 운영 중
- 2019년의 주요 신규 투자 분야는 도매 및 소매업

콜롬비아 내 한국 법인 투자 현황 (2019년 5월)

(단위: 백만 달러)

| 연도   | 신규법인수 | 투자금액 | 신고건수 | 신고금액 |
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2015 | 2     | 12   | 11   | 7    |
| 2016 | 0     | 4    | 5    | 1    |
| 2017 | 1     | 0    | 4    | 1    |
| 2018 | 2     | 4    | 7    | 4    |
| 2019 | 1     | 1    | 1    | 1    |
| 총합   | 6     | 20   | 28   | 14   |

자료 : 한국수출입은행

### 콜롬비아 진출 기업 리스트

| No. | 진출업체        | 진출연도 | 취급분야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1   | 현대중합상사      | 1980 | 종합          |
| 2   | 삼성물산        | 1983 | 종합          |
| 3   | 삼성전자        | 1997 | 가전, 통신, IT등 |
| 4   | LG전자        | 1999 | 가전, 통신, IT등 |
| 5   | TGL 콜롬비아    | 2006 | 물류          |
| 6   | 한국 타이어      | 2008 | 타이어         |
| 7   | 포스코 인터내셔널   | 2010 | 종합상사        |
| 8   | 현대건설        | 2010 | 건설          |
| 9   | SK Holdings | 2011 | 종합          |
| 10  | 누가베스트       | 2011 | 건강보조기구      |
| 11  | LIG 넥스원     | 2011 | 방산          |
| 12  | LG CNS      | 2011 | 교통카드        |
| 13  | 넥센타이어       | 2012 | 타이어         |
| 14  | 현대엔지니어링     | 2012 | 건설플랜트       |
| 15  | 범한 PANTOS   | 2013 | 물류          |
| 16  | 제일기획        | 2014 | 광고/서비스업     |
| 17  | 라인코퍼레이션     | 2014 | 모바일 서비스     |
| 18  | 삼성SDS       | 2014 | ICT/물류      |
| 19  | 한국공항공사      | 2014 | 공항서비스       |
| 20  | 현대 글로벌 서비스  | 2019 | 서비스업        |

자료 :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(2019년 9월)

####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성공사례

- 한국기업의 콜롬비아 과일 생산 투자
  - 한국기업 L사의 경우 과일과 화훼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
  - 콜롬비아 과일 용과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가공하여 일본, 미국,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투자 하였으며, 판매량 증가로 투자 성공

####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실패사례

- H사의 가스 생산 투자
  - H사는 가스 생산 프로젝트인 부에나벤투라 태평양 가스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를 위해 공개입찰을 시도
  - 그러나 입찰 후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전체 입찰이 취소되고 프로젝트 재검토가 결정 되면서 결과적으로 투자 실패

## 다. 주요 경제협력 의제

### 인프라 개발 사업

- 상하수도 건설 및 인프라 확충 개발
  - 두케 정부는 카노아스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처리 시설 건설과 전철·고속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
  - 올해 5월 국무총리 방콜 시, 위 개발계획에 한국 기업의 기술과 경험이 활용될 수 있는 협력 확대 제안

### 정보통신기술(ICT)

- 오렌지 경제개발과 ICT
  - 콜롬비아 오렌지 경제의 기반은 ICT이며,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
  - 올해 7월 서울시-메데진시 간 우호협력 MOU체결에 따라 스마트시티, 도시재생,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문제 해결 기술 진출 가능



### Ⅲ. 진출전략

다양한 기회와 위험이 상존하는 콜롬비아 시장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·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로, 기회에는 적극적으로 위험에는 틈새를 공략하는 방법으로 콜롬비아 진출 시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슈와 전략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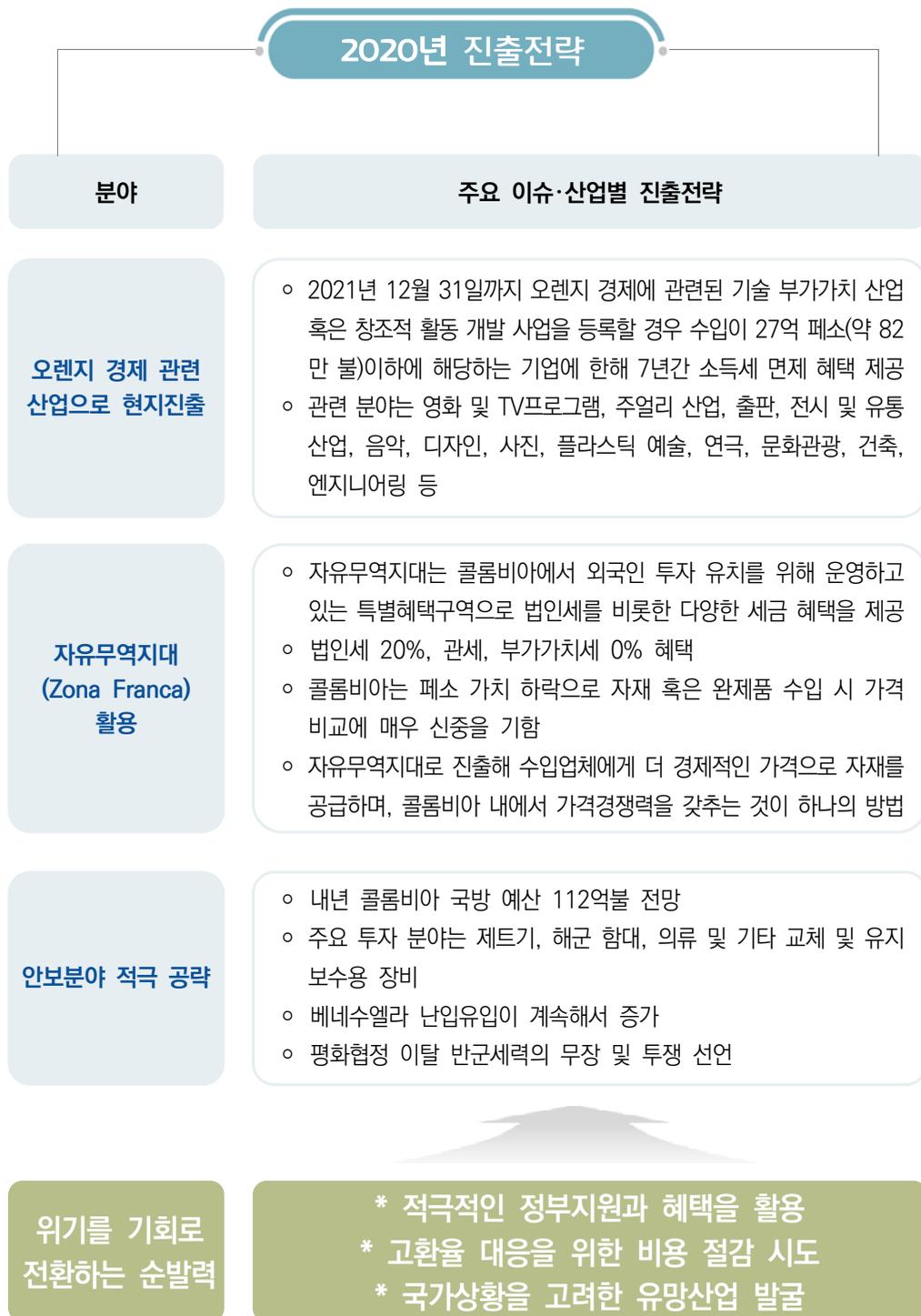
####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

##### <콜롬비아 시장 SWOT 분석>



| 전략방향             | 세부전략  | 진출전략 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SO 전략<br>(역량 확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무역협정을 활용해 다양한 완제품 수출 공략</li> <li>• 제조 공장 등 투자진출을 통한 콜롬비아 및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-콜 FTA 활용</li> <li>•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적극 활용</li> <li>차량 보안필름, CCTV, 개인 호신물품 등 보안 물품 시장 공략</li> <li>자유무역지대를 이용한 현지 진출</li> <li>온라인 판매를 통한 전자상거래시장 공략</li> </ul> |
| ST 전략<br>(강점 활용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 등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치안 방지 프로젝트 및 보안 제품 시장 공략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WO 전략<br>(기회 포착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판매법인 설립 및 현지 물류창고 등을 활용, 물류 비용 절감 및 제품 수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WT 전략<br>(위험 대응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SNS나 온라인마켓을 통해 제품 홍보로 가격을 낮추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환경 선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
## 2 주요 이슈·산업별 진출전략



## 2-1. 오렌지 경제 - 각종 정부 혜택 사업 분야 공략

###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

- 정부의 적극적인 오렌지 경제 산업 지원
  - \* 소득세면제, 무상환 대출 등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
- 한국은 이미 많은 문화 분야에서 수출성공을 이룬 사례가 존재
  - \* 영화, 드라마, 예능포맷을 비롯해 애니메이션, 디자인, 예술, IC 기술 등

### 주요 이슈 및 트렌드

- 두케 정부, 오렌지 경제 관련 산업 적극 지원
  - 오렌지 경제 위원회와 오렌지 경제기금을 준비하고 있으며,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권장
  - 소득세 면제, 상환이 필요 없는 대출 등 기본 자금 없이 창업, 유지할 수 있도록 혜택 제공

###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

- 소득세 면제가 자재 및 기술 수입으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
  - 최대 7년 소득세 면제는 기업 운영 시 자재 및 기계, 신기술 수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이 생기는 것을 의미
  - 이는 일반 기초 산업기계 혹은 제조를 위한 원자재 수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
- 예술, 문화, 창작 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
  - 도서, 영화, 음반, TV 프로그램, 각종 디자인, 예술, 공예품제작, 문화교육, 창작교육,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해당
  - 3D 프린팅, 클라우드,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등 IT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도 포함

## 2-2. 비용 절감을 통한 현지 시장 진출 - 자유무역지구 활용

###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

-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12개의 자유무역지대 운영
  - \* 콜롬비아는 저렴한 인건비, 풍부한 노동력, 중남미 시장의 접근이 쉬운 지리적 위치 보유
- 법인세 20%, 관세 부가가치세 0% 등(기존의 33%보다 13% 낮은 법인세)
- 19개 주 64개 도시에 위치
  - \* 중남미, 북미, 태평양, 카리브해안, 국내까지 다양한 진출 조건에 따라 선택 가능

### 주요 이슈 및 트렌드

- 자유 무역지대 활용 현황
  - 2018년 기준 총 누계 43.5조 달러 투자 유치, 961개 회사 설립, 약 30만개 일자리 창출
  - 19개 주 64개 도시에 43개의 상설 자유무역지대와 69개의 특별 상설 자유무역지대로 총 112개의 자유무역지대 존재
- 장기적 사업 계획에 안정적
  - 자유무역지대 입주는 조건에 따라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가능
  -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감을 부여
  - 또, 상품 수입 시 자유무역지대는 관습적으로 국외로 취급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없음
  - 기존 법인세는 33%이나 자유무역지대 입주 시 20% 적용

###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

- 콜롬비아 진출로 가격경쟁력 갖추기
  - 콜롬비아는 현재 고환율로 수입업체들이 자재나 완제품 수입 시 가격비교에 매우 신중을 기함
  - 물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,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, 가격이 저렴한 중국, 인도 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이유도 연일 상승하는 달러가치가 한 몫 함
  - 자유무역지대 이용 시 고객이 지불해야하는 부가가치세가 0% 적용을 받아 자재 구입이 용이 할 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
- 제조, 포장, 조립 등 다양한 산업 방식으로 진출 가능
  - 콜롬비아 자유무역지구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이 진출 가능
  - 자유무역지구 입주 시 콜롬비아 내에서 구매하는 원자재나 판매하는 제품 모두 부가가치세가 0%로 적용
  - 부품수입 후 자유무역지대에서 조립 후 판매 혹은 수출, 완제품 수입 후 라벨링 및 포장만 하는 활동으로도 지출비용을 낮추고 콜롬비아 국내외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

## 2-3. 국가 위기로 치안유지 필수 - 안보제품으로 안정적인 진출 모색

###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

- 계속해서 유입되는 베네수엘라 난민
  - \*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유입 인구만 140만 명이며, 2019년 연말까지 총 유입인구 150만 명 예상
- 평화협정 이탈 반군 세력의 등장
  - \* 반군세력인 FARC의 주요 지도자 3인이 평화 협정을 이탈, 무장과 새로운 반군활동 선언
- 2020년 콜롬비아 국방 예산 112억 불 전망
  - \* 현재 2020년 예산과 관련해 책정 작업 시작

### 주요 이슈 및 트렌드

-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 계속해서 증가
  - 콜롬비아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매일 4,500명의 난민이 유입되고, 그 중 1,500명에서 2,000명이 콜롬비아에 정착
  - 앞으로 최대 유입 난민 수는 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
  - 지원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난민의 유입으로 콜롬비아 내에 생계가 어려워 범죄에 가담하는 베네수엘라 난민 수 증가
- 전 반군세력의 재무장선언
  - 2019년 8월 콜롬비아 대표 반군 세력인 FARC의 전 주요 3인이 평화협정을 이탈해 재무장 및 내전을 선언
  - 이반 두케 대통령은 이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의 비호를 받는 마약 및 무기밀매단의 테러 선언으로 공표
  - 마두로 정권은 이에 대한 반발로 콜롬비아 국경지역에 15만 병사를 동원한 군사훈련 실시
  - 반군 및 베네수엘라와 긴장감 고조

###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

- 국가위기를 기회로 포착
  - 현재 콜롬비아는 범죄, 테러, 국가적 위협이 존재해 안보에 주의가 필요
  - 특히, 2020년 콜롬비아 국방예산은 112억불로 전망되며, 주요 투자분야는 제트기, 해군 함대, 보호의류, 기타 교체 및 유지보수용 장비 등으로 예상
- 국방 안보 제품부터 개인보안용품까지
  - 자동차 및 자전거 강도,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한 범죄, 살인 등 다양한 분야의 범죄가 기승
  - 국방 안보 제품뿐만 아니라 개인용 호신용품, CCTV, 블랙박스 등을 찾는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 전망

### 3 한-콜롬비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



### 3-1. 인프라 및 건설 개발 분야

####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

- 현 정부의 큰 관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소아차(Soacha) 시 하수처리장 건설
  - \* 사업규모 약 15억 달러의 중남미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예상
- 물류이동을 위한 인프라 개선 사업 계속해서 연구
  - \* 보고타시-파카타타바 구간 외에도 라 도라다-산타 마르타, 보고타-벨렌시토, 라 테바이다-부에나벤투라 등 다양한 구간의 선로 복원 프로젝트 진행 예정

#### 주요 이슈 및 트렌드

- 중남미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시설
  - 두케 정부는 현재 큰 관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소아차 시 카노아스에 하수처리시스템 건설 계획 중
  - 예상 규모는 약 15억 달러로 중남미 최대의 하수처리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
  - 특히, 지난 국무총리 방문 시 해당 개발 계획에 한국 기업의 기술과 경험 협력을 제안

####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

-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 보유
  - 한국의 건설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며, 이미 여러 성공사례와 관련 기술 수출 경험을 보유 중
  - 세계적인 성공사례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건설, 엔지니어링 컨설팅, 건축, 컨트롤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 진출 가능
  - 특히,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진출 시 원활한 서류 작업 및 현지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 가능

### 3-2. ICT

####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

- 두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오렌지 경제는 ICT를 기반으로 했다고 봐도 무방
  - \* 문화, 예술, 디자인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모바일 인터넷, 소프트웨어 등도 포함
- 특히 현 정부는 메데진 시에 4차 산업 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 시설 건축 예정
  - \* 이 외에도 스마트시티, 테크노 파크 조성 가능성 존재

### 주요 이슈 및 트렌드

- 디지털화와 창조경제
  - 이만 두께 대통령은 본인의 저서 “오렌지 경제”를 통해 특히 ICT를 활용한 디지털화와 창조경제 개발 사례를 언급함
  - 특히 한국의 성공 사례를 다수 언급으로 관련 산업 협업 가능성 존재

###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

-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
  - ICT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한국은 이미 해당 분야에 충분한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
- 최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활약 기대
  - 증강 및 가상현실, 로봇공학, 인공지능, 문화콘텐츠 산업, 첨단의료 산업, 생명공학 등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높음

## 3-3. 농업은 공업처럼, 농공업

###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

- 미국 소비자 시장의 변화로 콜롬비아 농산물 수출 증가
  - \* 아보카도, 라임 등 초록색 금으로 불림
- 세계 식량 공급 문제 해결 방안 모색
  - \* 식량농업기구, 세계은행, 콜롬비아 농림부 관련 프로젝트 공개 예정

### 주요 이슈 및 트렌드

- 수출 효자로 거듭난 아보카도와 라임
  - 미국인들의 식료품 소비문화가 달라지면서 콜롬비아산(産) 아보카도와 라임의 수출이 50% 이상 큰 폭으로 증가
  - 커피로 대표되었던 콜롬비아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선두로 초록색 금이라 불림

###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

- 스마트팜 기술
  - 콜롬비아는 넓고 비옥한 대지와 농업을 위한 최적의 날씨를 가졌으나 기술 및 인프라가 부족하고, 물자이동에 어려움이 있음

- 특히, 농산물의 경우 균일한 크기와 맛, 신선도를 위한 빠른 물자 이동과 포장이 필요한 산업
- 스마트팜 기술로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, 신선하고 안전하게 포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
- 국내 스마트팜 농업기술 전파를 통한 생산성 확대
- 특히, 현지 농업인 협회나 조합을 통해 협약 체결을 하게 되면 조합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인들과 연결이 쉽고, 기술 전수 및 관리가 용이함

## 4 진출 시 유의사항

### 환율변동에 따른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

- (현황) 콜롬비아 A사 석유 수입 업체 대금결제 미이행
  - 현지 석유 수입업체가 우리나라 수출 업체로부터 석유를 수입한 후 약속한 날짜에 대금결제 미이행
  - 이후 대금 결제 계획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기한연장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기한 내 대금결제 미이행
  - 최근 콜롬비아 페소 약세와 미국 달러 강세로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거래 물품이 항구에 도착했음에도 통관을 하지 않고 대금 결제가 연체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
- (대응전략)
  - ☞ 최근 콜롬비아 환율변동 추세를 확인하고 변동이 심할 경우 수입업체 측에 현지 은행 환율 리스크 헤지 상품에 가입 권유 (상품명 : Tunel)

## 첨부 1 수출유망품목(상품)

| 품목명 1             | HS Code         | 8429.52  | 수입관세율(%)          | 0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---|
| 포크레인              | 수입액('18/US\$백만) | 30.5   | 대한수입액('18/US\$백만) | 9.7 |
|                   | 선정사유            | 건설, 인프라 및 광업 분야 산업 회복세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시장동향            | 법인세 감면으로 국내투자자본 및 외국투자자본이 회복세를 증가하고 있음.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경쟁동향            | 콜롬비아 내에 법인으로 등록된 다국적기업들이 존재<br>대표 수출 국가는 일본, 브라질, 미국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진출방안            | 유럽과 미국제품과 가격으로 직접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진출 자세가 필요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품목명 2             | HS Code         | 2710.19.38.00  | 수입관세율(%)          | 2   |
| 윤활유, 기타 오일<br>윤활제 | 수입액('18/US\$백만) | 101.3  | 대한수입액('18/US\$백만) | 3.5 |
|                   | 선정사유            | 전년 기준 통 수입액 37.5% 증가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시장동향            | 산업기계, 중장비,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경쟁동향            | 현재 윤활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조제 산업이 없어 수입제품 공급에 의존도가 높음<br>대표 수출 국가는 미국, 멕시코, 영국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진출방안            | 현지 법인 진출을 통해 중앙유통망을 설립하고 대형 유통망을 선점해 다량의 제품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공략 자세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품목명 3             | HS Code         | 3919.90  | 수입관세율(%)          | 4   |
| 접착성 시트 필름         | 수입액('18/US\$백만) | 42.4   | 대한수입액('18/US\$백만) | 1.1 |
|                   | 선정사유            | 현지 수입업체들이 고객들의 평가를 통해 고품질의 한국 제품을 찾는 중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시장동향            | 건설시장, 병원, 사무실, 차량 등 자외선 차단 및 특수 처리된 접착식 방범필름 수요 증가 추세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경쟁동향            | 대표 수출 국가는 중국, 미국, 대만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진출방안            | 미국, 유럽제품은 가격이 높고 중국제는 제품의 질이 매우 낮아 소비층의 불만이 많고, 특히 낮은 가격으로 중국제를 수입했던 업체들이 자외선 차단 및 사생활 보호의 의미가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으로 적절한 가격에 품질을 유지하는 한국산 제품을 찾고 있음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품목명 4             | HS Code         | 3918.10  | 수입관세율(%)          | 4   |
| 바닥재 및 코팅재         | 수입액('18/US\$백만) | 17.8   | 대한수입액('18/US\$백만) | 2.0 |
|                   | 선정사유            | 병원, 실험실 같은 전문기관 건설 시 특별하게 롤(roll)형태의 바닥재 및 코팅재를 찾는 수요 성장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시장동향            | 건물의 현대화와 수요로 시장 성장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경쟁동향            | 대표 수출 국가는 중국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진출방안            | 콜롬비아 시장 수요는 현재 SPC 석재 플라스틱 복합 비닐 바닥재용 특수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, 발 빠른 시장 선점으로 현지진출 용이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품목명 5             | HS Code         | 9022.19  | 수입관세율(%)          | 0   |
| 산업용 X선 기기         | 수입액('18/US\$백만) | 6.15   | 대한수입액('18/US\$백만) | 0.6 |
|                   | 선정사유            | 제조 산업 분야 개선 및 콜롬비아 농산물 수출 증가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시장동향            | 수출 품질 개선을 위해 해당 장비 구비가 필수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경쟁동향            | 대표 수출 국가는 미국, 독일, 중국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진출방안            | 농업 및 농공업, 식품 제조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방법 모색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
## 첨부 2 수출유망품목(서비스)

| 품목명 1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정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 관세청 개발 | 선정사유 | 현재 콜롬비아 세관 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스템 업데이트 및 개선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장동향 | 국가 기관의 IT화 및 온라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새로운 관습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쟁동향 | 스페인, 독일, 중국, 인도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진출방안 | 한국의 IT기술과 경험으로 콜롬비아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 입찰에 도전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품목명 2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
| 국방협력                    | 선정사유 | 평화협정 이탈 반군세력으로 테러문제가 공식화 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장동향 | 평화협정 이탈 반군세력이 마약 및 무기 밀수 등 불법적인 사업을 하며, 이는 마두로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예상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쟁동향 | 미국, 독일, 스위스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진출방안 | 방위기업은 국가 공개 조달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품목명 3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
| 하수처리설계 및 인프라 엔지니어링      | 선정사유 | 콜롬비아는 현재 경험과 기술을 요구하는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투자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장동향 | 내년 공개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쟁동향 | 다국적 컨소시엄들이 콜롬비아 내 지점 등록을 통해 입찰 참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진출방안 | 콜롬비아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현지사정에 능통하면서 기술을 펼칠 수 있도록 틈새를 공략             |
| 품목명 4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
|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프라           | 선정사유 | 콜롬비아는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현 정부의 큰 관심 분야 중 하나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장동향 | 기초 조사 진행 중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쟁동향 | 이탈리아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진출방안 |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계획 발표 예정                 |
| 품목명 5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
| 5G 인프라 구축               | 선정사유 | 콜정부 향후 3년간 5G 기술 인프라 설치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장동향 | 통신기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, 콜롬비아 내의 사용자들은 국제적 수준의 기술 서비스를 요구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쟁동향 | 스페인 등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진출방안 | 콜롬비아 기술통신부는 내년 5G 현실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(잠정)

### 한-콜 FTA 활용 극대화 사업

- (배경) 2016년 7월 FTA 발효 이후, 우리 기업의 FTA 활용 기반 조성
  - 2017년~2019년,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FTA 홍보 활동, 주요 정부기관 및 경제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
  - 기존 수도에 집중된 FTA마케팅 사업에서 벗어나 지방 도시 FTA 상담회, 주요 바이어 면담 등 진행
- (주요사업) 한-콜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 진행
  - (마케팅) 한-콜 FTA 유망품목 맞춤형 마케팅 사업

| 주요 행사                   | 일시(잠정)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-콜 FTA 유망품목 맞춤형 화상상담회  | 2020.5월 | ○ 한-콜 FTA 활용 유망기업 15개사 |
| 중남미 FTA 발효 3국 시장개척단     | 2020.6월 | ○ 콜롬비아, 페루, 칠레 시장개척단   |
| 지방 도시 주요 산업별 맞춤형 마케팅 사업 | 연중      | ○ 도시별 주요 산업 바이어 발굴     |
| 국내 내수기업 제품 샘플쇼케이스 사업    | 연중      | ○ 내수기업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    |

- (조사) 한-콜 FTA 관련 시장조사 및 유망품목 발굴

| 주요 조사                 | 일시(잠정)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-콜 FTA 발효 4주년 성과 조사  | 2020. 6월 | ○ 한-콜 FTA 성과 및 유망품목 등 조사   |
| FTA 활용 유망 품목 발굴       | 2020. 7월 | ○ 관세 혜택 품목, 수출입 증가 품목 등 조사 |
| 2020년 콜롬비아 경제동향       | 연중       | ○ 월별 콜롬비아 경제동향 조사          |
| 한-콜 FTA 관세율 및 통관절차 안내 | 연중       | ○ FTA 활용 희망기업 Q&A 대응       |

##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·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

### 주요 정치 일정

| 주요 행사                     | 일시(잠정)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시장, 주지사, 지방의회의원 선출자 임무 실시 | 2020~2023 |    |

### 주요 경제·통상 일정

| 주요 행사            | 일시(잠정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콜롬비아-파나마 FTA 발효  | 연중     |    |
| 콜롬비아-이스라엘 FTA 발효 | 연중     |    |

### 유망 전시회 캘린더

| 주요 행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시(잠정)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MEDITEC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0.6.23. ~ 26 |    |
| Feria Internacional de Seguridad | 2020.8          |    |
| Feria Internacional de Bogota    | 2020.9.21 ~ 25  |    |
| Belleza y Salud                  | 2020.10         |    |

## 부록 對콜롬비아 K패키지(양국 간 상생협력방안)

### I. 한-콜롬비아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

#### 가. 콜롬비아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현황

##### 콜롬비아의 잠재력

- 권역 내 안정된 경제성장률 및 정치적 안정성
  - (콜롬비아) 2007년부터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오다 2017년 성장 둔화 이후 꾸준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
- 지리적 이점 및 아메리카 대륙 물류 허브 도약 목표
  -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보유한 국가임
  - 라틴 아메리카에서 화물 수송량이 가장 많은 엘도라도 국제공항 보유
- 중남미 3위 내수 시장
  - 인구 약 4천 8백만 명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남미 3대 시장(1위 브라질, 2위 멕시코)
  - 안데스 공동체, 태평양 동맹 등 역내 경제 블록 회원국으로 인구 2억 명 이상의 거대시장 보유
- 일부 산업기반 보유
  - 섬유, 플라스틱, 자동차, 타이어, 철강 등의 일부 제조업 기반 보유
  - 화훼, 커피 및 기타 농·목축업 등을 주축으로 한 수출산업 육성정책 강화

##### 주요국의 대(對)콜롬비아 경제협력 현황

- 미국 경제협력 현황
  - 2012년부터 FTA 체결국으로 콜롬비아 수출입 1위 국가
  -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, 화훼, 커피이며, 주요 수입 품목은 휘발유 및 역청 광물 등에서 추출한 원유, 시리얼 및 기계류

### 미국 수출입 현황

(단위 : 백만 달러)

|          | 수출     | 수입   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2017     | 10,520 | 12,014 |
| 2018     | 10,540 | 12,986 |
| 2019 상반기 | 5,996  | 6,626  |

자료 : GTA(2019년 8월)

#### ○ 중국 경제협력 현황

- 중국은 미국에 이어 콜롬비아 수출입 2위 국가
-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, 철강, 구리이며, 주요 수입 품목은 음향장비, TV 등 전기 기계, 기계류, 유기 화학물

### 중국 수출입 현황

(단위 : 백만 달러)

|          | 수출    | 수입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2017     | 3,939 | 8,754  |
| 2018     | 2,004 | 10,544 |
| 2019 상반기 | 1,863 | 5,207  |

자료 : GTA(2019년 8월)

#### ○ 일본 경제협력 현황

- 주요 수출 20위 품목은 커피, 원유, 화웨이이며,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, 기계류, 철강 순

### 일본 수출입 현황

(단위 : 백만 달러)

|          | 수출  | 수입 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|
| 2017     | 474 | 1,231 |
| 2018     | 557 | 1,288 |
| 2019 상반기 | 217 | 614   |

자료 : GTA(2019년 8월)

#### ○ 콜롬비아 FTA 및 경제·무역 협력 체결 현황

| 체결협정      | 체결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체결시기(연도)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안데스공동체    | 페루, 볼리비아, 에콰도르                    | 1969.5.26  |
| G3        | 멕시코, 베네수엘라*                       | 1994.6.13  |
| CARICOM   | 카리브 공동체<br>(자메이카, 아이티 외 13개 정회원국) | 1994.7.24  |
| 경제보안협정    | 쿠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94.7.8   |
| MERCOSUR  | 메르코수르가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4.10.18 |
| 태평양동맹(PA) | 콜롬비아, 페루, 칠레, 멕시코                 | 2011.4.28  |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콜-칠 FTA  | 칠레                       | 2009.1.26  |
| 중미삼각지대   |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과테말라        | 2007.8.9   |
| EFTA     | 스위스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, 노르웨이 | 2008.11.25 |
| 콜-캐 FTA  | 캐나다                      | 2009.12.9  |
| 콜-미 FTA  | 미국                       | 2006.11.22 |
| 콜-EU FTA | EU연합                     | 2013.5.22  |
| 콜-코 FTA  | 코스타리카                    | 2013.5.22  |
| 콜-한 FTA  | 한국                       | 2014.12.26 |

주 : 2006년 11월 19일 베네수엘라 탈퇴  
자료 : 콜롬비아 상공 관광부(MinCIT)(2019.8)

## 나. 한-콜롬비아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

### 콜롬비아는 오렌지 경제를 통해 신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

- 이반 두케 대통령, 오렌지 경제 산업 정책 지원 중이며,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산업을 주로 육성 중이므로 상생협력 가능
  - ‘오렌지 경제’는 이반 두케 대통령이 임기 전 출판한 저서로, 문화, 예술 및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콜롬비아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전략
  - 주요 해당 산업은 건축, 디자인, 공연, 예술, 문학, 공예품, 영화, 사물 인터넷, 에너지 저장장치, 3D 프린팅 활용, 소프트웨어 개발, 애플리케이션 개발, 비디오게임 제작 등 IT 기술이 요구되는 디지털화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
  - 콜롬비아 통계청은 오렌지 경제 측정 시스템인 시에나(SIENA)를 구현, 오렌지 경제 파급효과 측정 중
  - 두케 정부는 오렌지 경제 위원회와 오렌지 경제 기금을 준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, 오렌지 경제 산업이 향후 10년 내 콜롬비아 GDP의 7%에 달할 것으로 전망
- 콜롬비아 내 전문 인재 양성 필요성 증대
  - 소프트웨어 개발,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개발, 데이터 관리, 프로크리에이터 등 프로그래밍 및 디지털 미디어 개발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나 부족하고 전문 교육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
  - 우리나라 우수 인력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양국 간 인력교류 협력 가능

### 한-콜 FTA 발효 4주년 활용 극대화

- 미래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교류 확대
  - 콜롬비아는 중남미 3대 시장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·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어왔으나, 2002년 우리에 정권부터 추진된 일련의 경제개혁과 정치·사회 안정화 노력으로 성장 궤도에 안착

- 적극적인 시장개방 및 FTA 확대를 통한 세계 경제와의 통합, 역내 경제블록 구성 및 국제기구 참여 확대 등의 정책도 국제사회에서 콜롬비아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면서 중남미 역내 역할 및 영향력 확대
- 자원건설 플랜트 시장 선점 필요
  - 국가 성장기반 강화와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로 콜롬비아는 중남미 건설 프로젝트 중심국으로 부상
  -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개발계획은 인프라, 산업, 사회복지, 환경 분야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, 내부적으로는 성장기반 확보를, 외부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투자 유치 확대 기대
- 상품시장 선점 및 진출 품목 다양화
  - 특히 IT, 전자제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콜롬비아 소비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제품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 기대
  - 그 밖에 농업 개발, 인프라 프로젝트, 보건 환경 개선, 교육환경 개선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함께 우리기업의 진출 유망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 필요

한-콜 FTA 활용률 현황 및 유망품목 전망

□ 한-콜롬비아 FTA 활용률 현황

○ 한-콜 FTA 활용률\* 점차 상승

- 2018년 기준, 한-콜 FTA 활용률이 수출 시 53%, 수입 시 90.3%로 증가

\* FTA 활용률이란 FTA 특혜관세율 적용된 수출입 품목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횟수를 통해 수출입 시 FTA 특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수치

한-콜 FTA 연도별 활용률 변화

(단위 : %)

|      | 수출   | 수입   |
|------|------|------|
| 2016 | 17.4 | 66.4 |
| 2017 | 49.8 | 87.2 |
| 2018 | 53.0 | 90.3 |

자료 : 관세청(2019년 9월)

한-콜 FTA 산업별 활용률(2018년 기준)

(단위 : %)

| 산업별(MTI1기준)   | 수출   | 수입   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
| 농림수산물         | 5.5  | 91.6  |
| 광산물           | 4.6  | 100.0 |
| 화학공업제품        | 14.0 | 1.0   |
|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| 74.9 | 96.0  |
| 섬유류           | 41.5 | 8.0   |
| 생활용품          | 6.1  | 88.4  |
| 철강금속제품        | 1.9  | 99.6  |
| 기계류           | 67.2 | 0     |
| 전자전기제품        | 54.4 | 72.1  |
| 잡제품           | 0    | 0     |
| 합계            | 53.0 | 90.3  |

자료 : 관세청(2019년 9월)

○ 한-콜 FTA 산업별 활용률 현황

- 2018년 산업별 기준, 수출 시 한-콜 FTA 활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(74.9%)이며, 기계류, 전자전기제품이 각각 67.2%, 54.4%로 집계
- 수입 시 광산물은 FTA 활용률 100%로 집계되었으며, 철강금속제품이 99.6%, 농림수산물이 91.6%

## II.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

### 가. [G2G] 상호 인증 체계 완화

#### ① 상호 인증 협력기반 구축

#### (정책 수요) 콜롬비아 정부 및 바이어는 보건의료, 미용 분야 등에서 국내 제품수입 및 공공조달 형태의 협력 수요

- 의약품, 의료기기, 화장품은 식약청(INVIMA)으로부터 위생허가증 획득이 필요함
- 절차가 까다롭고 제품 공정 과정, 상세 제조법 등 민감한 서류를 요구하여 제조업체의 경우 거부감을 느껴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
- 인증 취득 비용은 세부 품목별로 상이하나 1,000달러~4,500달러가 소요되며 생산공장 직접 방문 및 검사의 경우 최대 5만 달러 소요  
→ G2G 레벨의 인증분야 상호 인증, 인허가 취득지원 기반 조성 필요

#### 한-브라질 인증분야 G2G 레벨 협력사례

◆ 양국 산업부간 한-메르코수르 TA 관련 전자·가스·자동차 등 품목의 기술규제 / 인증에 대한 협상 진행 중  
\* 브라질 인증기관(INMETRO)의 경우, SUB 그룹으로 참여 중

◆ KOTRA - 협력 MOU 체결(2015, 2017년)  
○ (2015.10월) KOTRA-INMETRO 협력 MOU  
○ (2016.9월) INMETRO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장비 기증(통상연계형경험사업)  
○ (2017.5월) KOTRA-INMETRO 협력 확대 MOU 체결  
\* 기존 전자분야 위주에서 의료 분야로 기술규제 완화 및 인증 협력 확대

◆ 양기관 대표, 직접 만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, 추진(2018년)  
○ 대(對)브라질 인증 애로사항 및 진출수요 조사  
- 내용 : 브라질 진출(수출 포함)시 인증 애로 주요분야 및 애로사항  
○ 브라질 인증 (진출) 안내자료 한국어판 제작  
- 내용 : 포어(또는 영어) 브라질 인증 안내자료의 한국어판 제작  
○ 2019년 상반기 한국에서 KOTRA-인메트로-KTR 공동 대(對)브라질 인증진출세미나 개최  
○ 양국 인증 협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인적 교류 확대 추진(2~3주간)  
○ 인메트로에 대한 인증 유희장비 이전사업(CSR 또는 KSP 일환) 추진

◆ KTR의 경우, 인증취득 기업수요를 직접 받아 이를 지원(B2G)

- (협력 방안) 우리나라 산업부, 보건복지부와 콜롬비아 규제당국인 인비마(INVIMA) 레벨에서의 협력 MOU 체결  
\* 전문가 인적교류, 인증애로사항 등 정보공유, 인증안내자료 제작, 인증취득 지원 등

## ② KSP를 활용한 산업 정책 한류 확산

### (정책 수요 1) 콜롬비아 중소기업 혁신정책 수립 및 이행방안

- (배경) 콜롬비아의 낮은 총 요소생산성(TFP, Total Factor Productivity) 극복을 위한 KSP 사업 수요
  - 콜롬비아의 2000~2016년 연평균 총 요소생산성\*은 -0.2%로 페루(0.4%), 아시아국가 평균(1.8%)보다 저조
    - \* 총 요소생산성은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과 자본증가분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으로,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, 자본투자금액,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
  - 높은 생산성의 유지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유지의 중요 결정요인이기에 중소기업 혁신정책 수립 및 적용을 통한 생산성 확대 추진
- (정책 기초) 콜롬비아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파일럿 프로그램 추진
  - 2014-2018 국가발전계획목표, 생산성 발전정책(PDP), 2018-2022 국가발전계획 수립
  -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관련 조언을 요청하여 작동 가능한 전략을 새로이 전수 받고, 이를 통해 현재의 국가정책·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협력국의 구상
- (사업내용)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 혁신 정책의 트렌드 분석, 한국의 중소·중견기업 지원 정책 및 환경 검토, 해당 분야의 정책 제언
  -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지원 정책 및 규제 등을 분석하여 콜롬비아의 핵심 성과지표 개선 및 정책제언

### (정책 수요 2) 콜 제품 및 공급자를 위한 기업 간 e-Marketplace 구축 방안

- (배경) 낮은 글로벌 밸류 체인 참가율 및 로컬 기업 제품
  - 콜롬비아의 수출에 있어 해외 부가가치 비율은 라틴아메리카 평균(23%)보다 저조한 약 15%
  - 전 세계 무역에 있어 콜롬비아의 부가가치 기여도도 약 3~7%로 라틴아메리카 평균(5~10%) 이하임
  - 콜롬비아 기업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생산과정 전·후방 연계를 추진하고, 제품 및 공급자를 위한 기업 간 e-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여 로컬 공급 기업들과 해외바이어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
- (사업내용) 콜롬비아 제품과 공급자들을 소개할 수 있는 B2B e-마켓플레이스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 프로그램
  - 국제/국내 거래 활성화를 위한 e-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구축, 운영 계획, 마케팅 전략 등 제시

- KOTRA의 'BuyKorea' 플랫폼을 참고하여, 콜롬비아 기업들이 회사와 제품소개를 통해 공급자와 바이어를 연결할 수 있는 전략 추진

## 나. [B2B] 양국 기업 간 산업협력

### 1 제조업(자동차, 자동차 부품) 협력

#### 정부의 주요 자동차 산업관련 정책

- 콜롬비아 정부는 내수판매 활성화, 부품산업 경영안정 등을 위해 PROFIA\* 프로그램 수립
  - \* PROFIA 프로그램: 안데스 공동체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으며, 제1567호에 의거하여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
  - PROFIA 프로그램은 관세 혜택을 통해 국내외 자동차 산업 투자 유치 및 차량 제조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
  -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 내에서는 무관세 적용되며, 일부 예외 품목은 무관세 혜택에서 제외됨
    - \* 16인승 차량, 4,537톤 이상의 화물 차량, 기타 특수 차량(크레인 및 건설 중장비)

#### 내수시장 동향

- (생산량) 2019년 자동차 생산량 122,900대 생산 전망. 전년 대비 7.2% 증가
  - 자동차(89,700대), 상용차(6,080대), 기타(28,120대) 생산 예상
  - 콜롬비아는 석유 수출국이나 연료 생산 기술이 없어 재수입을 하는 구조로 자동차용 연료의 가격이 높은 편
  - 콜롬비아 자동차협회(ANDEMOS)는 2019년 콜롬비아 자동차 시장규모 성장 목표를 전년 대비 7.5%로 설정

자동차 시장규모

(단위 : 대)

| 구분        | 2015년   | 2016년   | 2017년   | 2018년   | 2019년* 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총 자동차 판매량 | 283,380 | 253,698 | 238,238 | 256,662 | 274,000 |
| 자동차 생산량   | 63,606  | 95,123  | 105,514 | 114,607 | 122,900 |
| 자동차 수출량   | 29,376  | 36,927  | 37,657  | 42,928  | 45,900  |
| 자동차 수입량   | 249,150 | 195,502 | 170,381 | 184,983 | 197,000 |

주\*: 2019년 전망치

자료 : 콜롬비아 자동차 협회(ANDEMOS), GTA(2019년 9월)

- (보급률) 2019년 상반기 보급률 증가
  - 올해 상반기 총 자동차 판매량은 116,21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.4% 증가
  - 특히 전기 &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판매량이 291.5% 증가

### 주재국 자동차 보급률 현황

(단위 : 대)

| 인구 1000명당 등록대수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*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승용차            | 66.5  | 70.4  | 71.6  | 68.5  | 73.1   |
| 상용차            | 47.7  | 50.5  | 60.3  | 63.2  | 65.3   |
| 합계             | 114.3 | 120.9 | 131.9 | 131.7 | 138.1  |

주\* : 2019년 전망치

자료 : PROCOLOMBIA, BBVA Research, 콜롬비아통계청(DANE)(2019년 9월)

#### 협력방안

- 기술제휴 - 생산역량 공유, 공동 R&D중심 경험활동 전개
- 투자진출기반 양국 주력 기업중심 협업기반 조성

| 단계별 방안 | 자동차 분야   |
|--------|--|
| 협력 프레임 | 현대, 기아차 등 대기업 중심으로 콜롬비아 시장점유율 확대 → 부품, 보수 등 중소기업 진출 분야로 확대 |
| 1단계    | (G2G) 공장 증설, 생산 확대 등에 관한 규제완화 등 합의, FTA 체결 추진              |
| 2단계    | (B2B) 현대, 기아차 시장점유율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단계    | 중소 부품업체 진출, 유지·보수 지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추가 방안  | 친환경 차량을 포함한 자동차분야 전 과정 협력 프로세스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] 농업 관련 산업 협력

#### 농업 관련 주요 정책

- 조세 개혁으로 세금 감면
  - 작년 부분 승인된 조세개혁에 의하면 농업분야의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예정
  - 올해부터 2021년까지 농업 관련 산업 법인세는 50%가 감면되고, 2022년은 100% 감면
  - 농업 분야로 개발된 경작지는 현재 경작 가능 지역의 19%이고, 콜롬비아 정부는 약 81%에 해당하는 비경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

#### 내수시장 동향

- 콜롬비아 농업분야 새로운 시도로 변화의 바람
  - 콜롬비아는 단순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, 농기계 등 농업 관련 산업분야도 점차 확대하는 추세

- 특히, 화훼 분야는 콜롬비아가 세계 2위의 화훼 수출국으로 약 14만 명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, 콜롬비아 화훼 최대 수입 국가는 미국, 일본, 캐나다 순
- 수출량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온실기술, 포장 등 여러 관련 분야 개발에도 적극적

### 화훼 수출량 및 수출액

(단위 : 톤, 백만 달러)

| 구분  | 2016년   | 2018년   | 2018년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수출량 | 236,785 | 246,118 | 259,523 |
| 수출액 | 1,328   | 1,417   | 1,477   |

자료 : PROCOLOMBIA, GTA(2019년 9월)

### 협력 방안

- o 국내 스마트팜 농업기술 전파를 통한 생산성 확대
- o 한-콜 FTA 관세 혜택 활용을 통한 양국 농업 교류 활성화

## 다. [B2G] 에너지·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

### 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 수요

- o 콜 정부, 다양한 재생에너지 산업분야 조사 및 프로젝트 수요 증대
  - 콜롬비아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의 약 64%를 수력에 의존하고 있으나, 최근 라니냐 현상 등으로 에너지 공급 애로 발생
  - 태양열과 풍력을 활용한 개발 프로젝트가 현재 타 분야에 비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,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 여러 혜택 지원 중
- o 물류 이동을 위한 인프라 개발 계획
  - 콜롬비아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해 도로 인프라 및 철도 건설·복원 프로젝트 계획
  - 대표적인 예로, 보고타와 파카타티바 시를 잇는 경전철 건설 및 라 도라다-산타 마르타 구간, 보고타-벨렌시토 구간, 라 테바이다-부에나벤투라 항구 구간의 선로 복원 프로젝트 예정
  - 목표는 선로 복원을 통해 총 33,000톤 이상의 물류를 이동시키는 것

### 협력방안

- o 현지기업 및 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
  - 한국기업은 남미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이 있음
  - 다만, 단독 진출보다 현지기업 및 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이 언어적 문제 해결과 현지 정보에 능통하다는 점, 각종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해결에 유리

## 라. [국민] 동반자 관계 형성과 발전

### 1 상생을 위한 인력교류 확대 방안

- ① 정부, 기업, 기간 관 협의를 통해 한국문화원 외 K-Beauty, K-Pop 등 한류 콘텐츠(춤, 노래, 화장 등) 오프라인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
- ② 한국문화원 K-콘텐츠 강좌 오프라인 교육지원
- ③ 양국 교육기관 및 보고타 시청 간 MOU를 통한 학생 교류 및 한국어 강좌 확대

#### 인력 및 문화 교류 사례

- ◆ **[사례1]** 2019년 주 콜롬비아 한국대사관 공식 초청 리틀엔젤스 방문  
\* 콜롬비아 독립 200주년을 맞아 주콜롬비아 한국 대사관의 공식 초청으로 리틀엔젤스가 보고타를 방문 마요르 극장에서 3일간 특별 공연 진행
- ◆ **[사례2]** 2019년 주 콜롬비아 한국대사관-서울시 후원 'K-Pop 커버댄스 경연대회'  
\* 서울 시장의 참여 및 후원으로 경연대회 1등은 서울시에 초대 무료 뮤직 비디오 촬영 지원 예정
- ◆ **[사례3]** 2019년 국내 7개 대학이 참여한 현지 최초 한국유학박람회\*  
\* 10.16일 개최, 콜롬비아는 한국 드라마, K-Pop 등의 영향으로 한국 유학 수요 증가  
→ 콜롬비아 현지 학생의 국내 유학 증가를 통한 한-콜 대학생 인력교류 증가
- ◆ **[사례4]** 2018년 세종학당재단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세종문화아카데미를 통해 김덕수 사물놀이패 방문 강습 및 공연 진행

### 2 CSR 활성화

#### 국내 주요 기업의 CSR 활동 현황

| 기업명    | CSR 활동   |
|--------|--|
| 좋은차닷컴  | - 콜롬비아 자동차 부품 및 엔진 수입업체, SENA와 국내기업이 협력하여 정비기술교육 진행<br>- 국산 자동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엔진 및 변속기 이론, 실습 교육 실시   |
| 국토정보공사 | - 반군과의 평화협정 후 콜롬비아 내 효율적인 도로정보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, 시스템 구축 필요 증대됨에 따라, 효율적인 데이터 취득 방법(UAV, 정사영상, 위성 영상 등) 전수<br>- 한국의 KLIS(한국토지정보시스템) 소개,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뱅크 구축 방안 교육 등 |
| KTR    | - NYCE(제품안전인증기관)에 전기전자안전시험장비 및 유기물 분석장비 이전<br>- 시험장비 교육 및 인증 체계 이전 및 산업부 ISCP(국제표준인프라협업사업) 소개  |
| 나눔테크   | - 현지 간호사, 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AED 사용법 교육<br>- AED, 응급처치 훈련 장비 등 기증   |

## G2G/B2G 레벨에서 CSR 활성화를 위한 과제

- ▶ 대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CSR 활동 홍보지원
- ▶ 콜롬비아 청년 대상 현지 기 진출 대기업 기술전수 및 직업 교육프로그램 확대 지원
  - \* 고급인력 공급 인센티브 협의(G2G), 수료학생 현지기업 취업지원(B2B)
- ▶ 한-콜 FTA 교육 등을 통해 양국 FTA 전문가 및 무역 전문가 육성
- ▶ 콜롬비아 진출 대기업 CSR에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
- ▶ 단순 나눔의 CSR에서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, 전략적 경영활동으로 진화(예 : CSV) 될 수 있는 프로세스 지원

### Ⅲ. 향후 對콜롬비아 K패키지 실행체계(안)

#### ① 한-콜롬비아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한 양국 교역 확대방안 추진

- 2020년, 한-콜 경제협력위원회 구성 및 구체적인 협업 방안 마련
  - KOTRA, 보고타 상공회의소, 한-콜 상공회의소 등 양국 경제 관련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국 교역 확대 방안 마련
  - 한-콜 FTA 활용방안, G2G 사업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
- Sub분과도 만들어, 분야별 트러블 슈팅, 신규과제 발굴, 실행력 제고

#### ② 단기적으로 현지 KOTRA를 KBP (Korea Business Plaza) 화(化)하여 상시협업

- KOTRA가 주축이 되어, 한-콜 경제협력위원회 운영 및 협업 유도
  - KOTRA 차원 자료로, 양국 정부·유관기관·대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
    -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
    - \* 경제부문 중심이 아닌, 외교, 안보, 사회, 문화 전(全) 분야 참여주체 수요 반영



작성자

| 연번 | 작성자         | 직책 | 소속     | Tel                 | Email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이종호         | 과장 | 보고타무역관 | (57-1)637 5099(102) | jhlee@kotra.or.kr        |
| 2  | 김다희         | 현지 | 보고타무역관 | (57-1)637 5099(112) | maya.kim@kotra.or.kr     |
| 3  | Daniel Cano | 현지 | 보고타무역관 | (57-1)637 5099(116) | daniel.cano@kotra.org.co |

KOTRA자료 20-100

## 2020 국별 진출전략 **콜롬비아**

발행인 권평오  
 발행처 KOTRA  
 발행일 2020년 1월  
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 
 (06792)  
 전화 02) 1600-7119(대표)  
 홈페이지 www.kotra.or.kr  
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 
 (02-3460-7689)  
 I S B N 979-11-6490-246-0(95320)

Copyright © 2020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  
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
